

모성간호 실습후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 고찰

- 모성간호 실습, 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 -

조 정 호*

I.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인간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일련의 임신, 분만, 산육과정은 변함없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게 된다. 출산 과정을 통하여 여성이 위기나 긴장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것은 성숙상의 과정이며 자기실현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쉽게 받아들일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관, 행동을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행위로서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길러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박정숙, 1982; 정원식, 이상노, 이성진, 1983).

간호학은 실천철학을 지닌 응용과학으로 이론 강의의 틀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인 임상실습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박송자, 1993).

간호학의 한 분야인 모성간호학을 이수한 간호학생은 임신, 분만 및 산육과정을 여성의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여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역할임을 인식할 것이 요망되며 그래야만 미래의 간호현장에서 임신 및 분만 과정중 도움이 요구되는 대상자에게

전인간호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간호교육에서 전인간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전문간호사를 배출해야 할 책임이 간호교육기관에 있으며, 간호교육에는 강의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성실습후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전인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생들이 임신, 분만, 산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 형성은 Roy의 적응모형에 근거하여 간호대상자가 경험하는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비효과적인 자극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간호중재가 무엇인가 이해하여야 한다.

즉 비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요인에 대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고, 이를 능숙하게 시행하여 간호대상자의 적응문제를 해결해주므로써 임신, 분만, 산육과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된다고 보겠다. 이것은 또한 모성간호학 실습교육 목표이기도 하다.

분만과정이라는 특정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간호학생들이 솔직하게 표현하므로써 간호학생 자신의 개념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어 미래의 임상 간호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산부들에게 전인간호를 할 수 있는 승화과정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모성간호 실습후 간호학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임상 조교수

생의 반응을 조사하여, 보다 바람직한 앞으로의 모성간호 실습에 있어 참고자료로 삼고, 임신, 분만 및 산육과정을 하나의 자연적인 성숙과정으로 인식하게 하므로서 간호학생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B. 용어의 정의

- ① 모성간호 실습 : 교과과정에 의해 중앙의료원 산하 양개(필동, 용산) 병원에서 간호학과 4학년 1, 2학기 동안 분만장과 산과병실에서의 임상실습을 말한다.
- ②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 : 분만장과 산과병실에서의 임상실습후 특히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지켜 보면서 주관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감정상태의 내용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A. 모성간호 실습

임상실습 교육은 학습된 지식을 간호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임상실습 교육에서는 현장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합하는 가치를 가지고, 이론으로는 알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있을 때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받아 보완하면서 진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모성간호는 여성, 신생아 그리고 가족을 간호대상자로 하여, 생활주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안녕을 유지, 증진하고 여성의 가족내 역할과 사회적 역할수행시 야기되는 다양한 건강문제까지 관리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간호로 확대되고 있다.

여성건강은 자녀와 가족 그리고 사회의 건강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김수지, 1979; 조결자, 강현숙, 1984). 출산경험은 한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정하므로 모성간호의 중점은 가족에 두고있다(Reeder, Mastroianni & Martin, 1983; Bobak, 1984).

이경혜(1983)는 모성간호학을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시기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최고의 건강상태 혹은 최저의 건강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학문이다.” 라고 제시하였다.

모성간호는 여성이 인지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속

되므로 여성의 생활주기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생의 변화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는 간호실무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실무지침에 대한 3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측면의 간호가 대상자에게 더 만족을 주고 비용면에서 더 경제적이다. 둘째, 여성이 신체기능을 잘 알고 문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에 능숙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셋째, 가족체계, 사회체계 속에서 일 개인의 건강은 다른 모든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고명숙 외 10인, 1992).

Gordon과 Anella(1974)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목표와 간호교육의 목적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강조하였으므로 그 소속 대학 및 학과의 교육철학과 목표가 일치하여야 하며, 모성간호학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은 먼저 간호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간호문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를 계획·실시하며, 중재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적 효과에 관한 내용과, 간호학생 자신이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돕는 양육적 효과에 관한 내용이 함께 포함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이미라, 1987).

간호학생들이 임신부들에게 보다 긍정적 관심과 친화력을 갖도록 모성간호 실습에 나오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분만과정에 대해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사전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B. 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임상실습은 간호교육의 정규과정에 의한 한 부분으로서 대상자 간호를 위해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직접 계획, 조직하여 실습 현장에서 간호학생들의 실습을 지도·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간호가 하나의 과학으로서 또 전문교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론으로 얻은 지식이 간호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겠다(오순애, 1984).

이와같이 간호교육에서 실습교육이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실습의 특수성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임상실습에 산재해 있으므로 간호학생들이 실습교육에 회의를 일으키거나 흥미를 잃는 일이 많음이 지적되었다(김의숙, 1981).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벗어나 종합병원이나 보건소등 현장에서 이루어 지고, 대학의 지도교수가 계속 상주

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조직체계나 분위기 등 모든 상황이 생소하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어 간호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아울러 기대와 다른 실습경험으로 위축감, 좌절감을 느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임상실습 시간이 많아지는 것과 비례하고 있다(김의숙, 1981).

한정석(1973)은 불만의 원인으로 “강의내용과 임상실습과의 차질에서 오는 갈등으로 실습장의 환경적인 차질, 실습시 소속하는 여러부류의 인간과의 관계, 임상실습 규정의 엄격성으로 오는 정신적 피로감” 등이라고 보았다.

김주희(1982)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대한 실습전 선입견이나 불안감이 비교적 높은 이유로 “병원은행동이 제한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습에 대한 지식부족”,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결자, 강현숙(1984)은 임상실습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학교와 교수, ② 학생의 간호학 선택동기와 간호가치관 ③ 임상실습 환경등을 설명하였다.

김수지(1979)는 임상실습 교육의 문제점으로 간호철학 및 이념의 빈곤, 이론과 실무의 격차,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점, 바람직한 간호를 수행하려는 의욕의 상실을 들었는데 간호학생들의 간호학에 대한 확고한 이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습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느끼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간호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부하게 하려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이론과 실습이 잘 배합되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겠다(김정순, 1984).

간호현장에서 학생들이 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간호행위를 수행하게 된다면 실습장에서의 위축감이나 좌절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리라 예상되므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모성간호학 실습시 동통완화를 위한 간호중재나 호흡법에 대한 이론적 강의가 실습나오기 전에 미리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분야별 임상실습중 모성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심리적 반응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모성간호 실습지침서 마련과 간호학생들의 갈등과 의문점을 해결해 주므로써 모성간호학의 실습목표인

임신, 분만, 산육과정에 대하여 자연적인 성숙과정으로 간호학생들이 인식하고 더 나아가 임신부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로 전인간호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3학년도 1, 2학기 동안 양개(필동, 용산)병원에 실습나온 35명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19~21세 군이 11명(31.4%), 22세 군이 19명(54.3%), 23~25세 군이 5명(14.3%)이었으며, 兩親父母 모두 생존해 있는 군이 32명(91.4%), 한쪽 부모만 있는 군이 3명(8.6%)이었고, 형제, 자매 서열상 첫째 군이 13명(37.1%), 둘째 군과 셋째 군이 각각 7명(20%), 막내 군이 8명(22.9%)이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 성	실수(N=35) 백분율(%)		
연 령	19~21세	11	31.4
	22세	19	54.3
	23~25세	5	14.3
兩親생존여부	兩親父母모두생존	32	91.4
	한쪽 부모만 생존	3	8.6
형제, 자매 서열	첫째	13	37.1
	둘째	7	20.0
	셋째	7	20.0
	막내	8	22.9

B. 자료수집

모성간호 실습기간은 4학년 1학기(2월 22일~6월 9일) 4주와, 2학기(8월 13일~11월 10일) 4주로 이루어 졌으며, 실습이 끝나는 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의 실습평가 시간에 배부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는 자가 기록법(Self-Reporting)을 이용하여, 간호학생들이 분만실에서 산모의 분만 과정을 지켜 보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솔직하게 서술하도록 직접 비지시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C.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백분율로 측정하였으며, 모성간호 실습 후 반응은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A. 모성간호 실습후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긍정적 반응

본 연구 대상자들의 모성간호 실습 후 긍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모성간호 실습후 긍정적인 반응은 「승고한 생명의 탄생」 「분만 후의 편안함과 만족감」 「가족의 우애와 지지를 실감함」 「건강한 아기의 탄생」 등의 범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고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범주에는 (생명의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꼈다)라는 속성이 포함되고,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순간 기적을 깨달았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한 느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분만 후의 편안함과 만족감」이라는 범주에는 (고통 뒤의 편안함과 안도감을 볼 수 있었다) (정상분만이 제왕절개술 보다 더 좋다) (수월하다)라는 속성이 포함되고, (고통 뒤의 편안함과 안도감을 볼 수 있었다)는 속성은 「고통끝에 이쁜 아기가 무사히 나왔을 때 산모의 편안한 표정...」 「건강한 아기와 엄마의 상태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정상분만이 제왕절개술 보다 더 좋다)는 속성은 「생각보다 정상분만이 깨끗하고 회복이 쉬움을 알았다」 「제왕절개술 보다는 정상분만이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수월하다)는 속성은 「생각보다 아기가 너무 쉽게 나온다」 「대기실에서의 오랜 진통에 비해 분만실에서의 출산시간은 짧았다」 라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가족의 우애와 지지를 실감함」이라는 범주에는 (귀하고 장하다)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남편의 지지가 보기 좋았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고, (귀하고 장하다)는 속성은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아기는 괜찮아요 하는 산모의 말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여자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는 속성은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남편의 지지가 보기 좋았다)는 속성은 「분만이 함께 있어준 남

편에게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건강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범주에는 (아기가 예쁘고 건강해 보였다)의 속성이 포함되었고 「고통속에 낳는 모습을 보니 그때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와같이 모성간호 실습후 간호학생의 긍정적 반응은 「승고한 생명의 탄생」 「분만후의 편안함과 만족감」 「가족의 우애와 지지」 「건강한 아기의 탄생」의 4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모성간호는 임신 분만 산육기 동안에 임산부의 신체적 안위와 안전분만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를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임신 분만 출산의 과정을 하나의 가족적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인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중심의 간호를 하고 있다(고명숙 외 10인). 일련의 성숙상의 위기인 분만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기능, 가족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대처하며 적절한 역할을 맡게 되는 가족역동(Family dynamics)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산모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포괄적으로 간호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사료된다. 송미승(1992)은 초산모들의 분만 경험에서 「해냈다」의 긍정적인 범주에 (신기하다) (좋다) (시원하다) (엄마가 되었다)의 속성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간호학생 역시 옆에서 관찰자로서 지켜볼 때 비록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정신, 정서적으로 산모와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출산에 대해 간호학생들 자신이 긍정적인 관심을 갖게 될 때 전인간호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승고한 생명의 탄생」 「분만후의 편안함과 만족감」 「가족의 우애와 지지」 「건강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범주를 참조하여 실습前에 Intensive Education Program을 마련하여 간호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확실치 않은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B. 모성간호 실습후 분만과정에 대한 간호학생의 부정적 반응

본 연구 대상자들의 모성간호 실습후 부정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표 3 참조>

모성간호 실습후 부정적인 반응은 「공포감」 「긴장감」 「놀라움」 「무력감」 「무감동」 「혐오감」 「피할수 없는 운명」 「힘들어 보인다」 등의 범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모성간호 실습에 대한 긍정적 반응

법 주	속 성	원 자 료
승고한 생명의 탄생	생명의 신비로움, 경이로움을 느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순간 '기적'을 깨달았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한 느낌. * 태아만출시 신비감과 함께 내자신이 뿌듯함과 희열을 느꼈다. * 한 생명의 탄생을 이룬 귀하고 경이로운 현장의 증인이 된 기분이 들었다. 점차로 신비감으로 바뀌었다. 아기 머리가 보일 때는 정말 신기했다 * 새로운 생명이 그 삶을 시작했으므로 아기가 나온 후에야 비로서 좋지않게 느꼈던 감정이 해소되었다. * 처음에 좀 놀랐고 신기했다. * 자꾸 보니까 생명 탄생의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느꼈다. 신기하다. *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 산도를 비집고 나온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신비감을 느끼게 하였다. * 한 생명으로부터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어 나오는 자연의 섭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감동을 주는 장면이었다. * 하나의 고귀한 생명을 10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성장시킨 것이 경이롭다. 분만하는 그 모습은 내게 많은 감동을 주는 순간이었다. * 무엇보다 생명탄생의 신비로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실상 그 과정을 지켜보고 새로운 생명체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다. 인간의 몸 속에서 신기한 방법으로 한 생명이 보호되고 자라는 과정들이 새삼 의외스럽게 생각되었다. * 생명의 탄생에 놀랐고 신비했다. * 처음 보는 과정이라 '경이' 그 자체였다. * 직접 정상분만을 보면서 놀라움, 경이로움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일어났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다시한번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것은 승고한 일이다. * 태아만출시 신비로움을 느꼈다. 신비로웠다 굉장히 신비로웠다. * 생명의 경이감...
분만후의 편안함과 만족감	고통뒤의 편안함, 안도감을 볼 수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쁜 마음으로 감내해야겠다. 고통 뒤의 기쁨... * 고통 끝에 이쁜 아기가 무사히 나왔을 때 산모의 편안한 표정... * 고통속에 태어난 새 생명은 눈물날 정도로 이뻤다. * 엄마가 된 자만이 그 고통을 알고, 아기에 대한 사랑을 알것 같았다. * 아기를 낳고나서 너무 평안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 회음절개 부위의 동통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모습이 밝아보여 좋았다. * 힘들어 하던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잠들거나 편안해 하는 것을 보니 출산후의 안도감이나 만족감이 큰것 같았다. * 건강한 아기와 엄마의 상태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 태아가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아기와 어머니가 너무 수고했다는 느낌으로 눈물나올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
	정상분만이 제왕 절개술 보다 더 좋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술방에서 본 제왕절개술과 비교해 볼 때 산모의 회복도 매우 빨랐다. * 주위에 아는 사람들을 보면 가능한한 정상분만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 생각보다 정상분만이 깨끗하고 회복이 쉬움을 알았다. * 제왕절개술보다 정상분만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제왕절개술보다 정상분만이 훨씬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수술실에서 보았던 제왕절개술 보다 좋아 보였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뚜렷이 느낄 수 있었다.
	수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보다 아기가 너무 쉽게 나온다. 쉽게 분만이 느껴지는것 같다. * 경산모로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덜 고생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범 주	속 성	원 자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산인 산모여서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날 때 건강하게만 태어난다면 그 역시 복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실에서 오랜 진통에 비해 분만실에서의 출산시간은 짧았다. *경산부라 진통도 없고 분만시간도 짧아서 그냥 무감각 상태에서 분만과정을 지켜 보았다.
가족의 우애와 지지를 실감함	귀하고 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인생을 소중히 해야 되겠다. *죽는 줄 알았다고 하면서도 '아기는 괜찮아요'하는 산모의 말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떠올랐다. *산모가 참 귀하고 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정말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만을 마친 산모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었다. *여자의 창조능력이 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모의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했다. *분만후 곧 아기에 대해 물어보는 산모의 모습이 위대해 보였다.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엄마에게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어머니의 위대함과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한 기간이었다. *나의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남편의 지지가 보기 좋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만시 함께 있어준 남편에게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 *어려운 분만과정을 남편도 같이 보면서 함께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모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남편)이 아무런 도움을 못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곁에 있는 것 만으로도 산모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한 아기의 탄생	아기가 예쁘고 건강해 보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산도를 통과한 신생아는 상상외로 깨끗하고 건강했다. *나오려고 필사적으로 힘을 쓰는 아기의 모습은 생명의 강인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고통속에 낳는 모습을 보니 그때 태어난 아기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분만과정을 통해 본 아기가 보고싶어 신생아실에 가서 잘 있는지 보았다 *양장맞은 얼굴, 뽕가를 놓칠새라 꼭 움켜진 주먹 등이 참으로 이쁘고 사랑스러웠다. *세상에 얼굴을 내민 아기의 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신기하기만 했다. *첫 울음을 터뜨리는 신생아가 너무 예쁘게 느껴졌다.

〈표 3〉 모성간호 실습에 대한 부정적 반응

범 주	속 성	원 자 료
공포감	무섭고 끔찍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섭고 끔찍하게 느껴졌다. * 처음엔 놀람기도 하고 분만과정 자체만으로 솔직히 좀 끔찍했고 산모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 회음절개술을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끔찍했다. * 회음절개술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끔찍하고 저런 일을 왜 해야하나 라는 부정적 생각이 있었다. * 처음 봤을 때는 '징그럽다' '저걸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두통, 식욕 부진이 있었다. * 끔찍하다. *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끔찍스럽기도 했다. * 너무 끔찍스럽다는 생각. * 끔찍할 것 같았다.

법 주	속 성	원 자 료
	충격적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으로 생각했던 것과 실제와는 그 느낌이 너무 달랐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 처음 본 분만과정은 충격적이었다. * 아기娩출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도 펴 돌았다. * 아기 머리에 피가 묻어 있고 태지도 남아 있어 조금 징그럽고 못생겼다는 생각을 했었다.
	두려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산모의 고통은 나를 두렵게 했다. * 과연 나 자신도 그런 수고를 감당해 내고 엄마가 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 *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 솔직히 아기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 분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
긴장감	실습前 들은 얘기에 긴장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실습 들은 학생들의 끔찍하다는 얘기에 긴장했다. * 실습前 선배들에게 들을 때 '분만과정을 본 후에는 아기를 안낳겠다'고 했었던 것 같다.
놀라움	분만과정이 놀라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맨 처음에 놀란 느낌이 더 강했다. * 아기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에 놀랐다. * 놀라움! * 아기 머리가 나오는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놀라웠다. * 보면서 약간 놀라웠다.
무력감	분만 진통시 안타깝게 지켜 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들이 경험하는 고통이 너무 커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 * 분만실에 들어오면서 부터 통증으로 아파하는 산모를 보며 동통간호에 무력감을 느꼈다. * 산모가 아파할 때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단지 호흡법을 통해서 도울 수 밖에 없었다. * 산모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 고통스러워 하는 산모를 보면서 덜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척 안타깝고 무기력한 느낌도 들었다. * 동통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적절한 지식제공과 심리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 산모 진통시 힘들어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 보았다.
무감동	산모의 진통에 감정 이입(Empathy)을 느끼지 못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직히 '경외감'을 느끼지 못했다. * 산모의 자궁수축이 나에게서 이해되지 않았다. * 산모가 아픔을 참고 아기를 낳는 것을 보면서 실감나지 않아 이상했었다.
혐오감	혐오스럽고 민망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의료팀이 지켜 보고 있는 가운데 설희위(Lithotomy P.)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워 보였다. * 한 사람이 태어 나면서 그 엄마의 산도와 회음부가 엉망이 될 때는 조금은 이상했다. * 한 생명이 태어 나기 위해서는 고통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 반 나체의 산모는 통증에 시달리느라 수치스럽고 민망하다는 생각을 할 거를 조차 없는 것 같았다. * 설희위(Lithotomy P.)의 추함과 간간히 들려오는 비명... 흐르는 피의 역겨움이 분만실에 가득했다. * 산모의 모습이 좀 썩스러워 보인다. * 내진하는 것 등이 혐오스러웠다. * 너무 아파서 악을 쓰는 모습이나 분만시 설희위(Lithotomy P.)의 모습이 혐오스러웠다.

범 주	속 성	원 자 료
피할 수 없는 운명	어렵고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 '엄마 나 죽을 것 같애'라고 울면서 말하는 산모를 보았을 때 안타까움과 생명탄생의 고통이 결코 가뺄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 정상분만하는 산모는 그 찢기는 아픔속에서도 아기의 건강상태를 물었다 *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 들었다	* 일련의 필요한 과정이며 여자로서 안타깝고 무서웠다. * 엄마가 되기 까지 많은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 엄마가 된다는 것이 힘들구나. * 여자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나는 못할 것 같다	* 힘들어 하던 산모에게 '다 이런거다'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과연 나도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나보고 아기를 낳으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다. * 진통 모습이 너무 힘들고 아파해서 임신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 분만과정을 보고 결혼 안하겠다는 친구도 있었다.
힘들어 보인다.	산모· 아기 모두 힘들었겠다	* 얼마나 분만의 고통이 크면 비록 마취를 한 상태지만 회음절개술을 하는 것 따위가 산모에게 고통을 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산모의 괴로워하는 모습 * 산모에게 매우 고통스러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 느꼈다. * 산모의 통증이 무척 큰 것 같았다. *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다. * 나라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 하지만 한번 보았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 엄마도 힘이 들지만 아기도 나을려고 무척 힘이 들었겠다는 생각도 했다 * 산모가 겪는 아픔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공포감」의 범주에는 (무섭고 끔찍했다) (충격적이었다) (두려웠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고 (무섭고 끔찍했다)라는 속성은 '회음절개술을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끔찍했다' '나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끔찍스럽기도 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충격적이었다) 라는 속성은 '처음 본 분만 과정은 충격적이었다' '아기 만출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두려웠다) 라는 속성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은 산모의 고통은 나를 두렵게 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긴장감」의 범주에는 (실습前 들은 얘기에 긴장했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었고 '먼저 실습 들은 학생들의 끔찍하다는 얘기에 긴장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놀라움」의 범주에는 (분만과정이 놀라웠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었고 '아기가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에 놀랐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무력감」의 범주에는 (분만 진통시 안타깝게 지켜 봤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었고 '분만실에 들어 오면서 부

터 통증으로 아파하는 산모를 보며 동통간호에 무력감을 느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무감동」의 범주에는 (산모의 진통에 감정이입을 느끼지 못했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었고 '산모의 자궁수축이 나에게서 이해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혐오감」의 범주에는 (혐오스럽고 민망했다)라는 속성이 포함되었고 '흐르는 피의 역겨움이 분만실에 가득했다' '산모의 모습이 좀 끔찍스러워 보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범주에는 (어렵고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 들었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고, (어렵고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라는 속성은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정상분만 하는 산모는 그 찢기는 아픔속에서도 아기의 건강상태를 물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 들었다) 라는 속성은 '엄마가 되기까지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나는 못할 것

같다)라는 속성은 ‘힘들어 하던 산모에게 다 이런거다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과연 나도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힘들어 보인다’라는 범주에는 (산모, 아기 모두 힘들었겠다) 라는 속성이 포함되었고 ‘아기 엄마도 힘이 들지만 아기도 나을려고 무척 힘이 들었겠다는 생각도 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와같이 모성간호 실습후 간호학생의 부정적 반응은 「공포감」 「긴장감」 「놀라움」 「무력감」 「무감동」 「혐오감」 「피할 수 없는 운명」 「힘들어 보인다」의 8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모성간호 실습후 간호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 긍정적인 양가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송미승(1992)의 초산모를 대상으로한 질분만 경험에 대한 통합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인간의 태도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환경과 정보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태도가 수정되고 또 태도의 변화 정도는 성격, 성숙정도, 경험에 의해 좌우된다고(박송자, 1993)하므로, 시사잡지나 T.V. 매개체, 신문, 의학서적, 부모, 친구 선배 등을 통해 미리 출산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 그릇된 선입견이나 기대로 인해 부정적 반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겠다.

김소야자(1973)는 정신과 간호에 대한 이론학습을 마친 후에도 강의실에서나 상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얼굴 표정, 자세, 음성 등에서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비록 교육이 인간의 신념이나 가치관, 태도 등을 하루아침에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간호현장에서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경험을 하기 이전에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간호기술, 간호지식을 제공해주어야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모성간호 실습후 간호학생의 반응을 조사하여, 보다 바람직한 양으로의 모성간호 실습에 있어 참고 자료로 삼고, 임신, 분만 및 산육과정을 하나의 자연적인 성숙과정으로 인식하게 하므로써 간호학생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1993년도 1학기(2월 22일~6월 9일), 2학기(8월 23일

~11월 10일) 동안 양개(필동, 용산)병원에 실습나온 35명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 기록법(Self-Reporting)을 이용하여 간호학생들이 분만실에서 산모의 분만과정을 지켜 보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솔직하게 서술하도록 직접 비지시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원자료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내용끼리 몇가지 속성으로 분류한 다음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성간호 실습후 간호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은 4가지 범주로 「승고한 생명의 탄생」 「분만후의 편안함과 만족감」 「가족의 우애와 지지를 실감함」 「건강한 아기의 탄생」 이었으며, 「승고한 생명의 탄생」은 (생명의 신비로움, 경이로움을 느꼈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고, 「분만후의 편안함과 만족감」은 (고통뒤의 편안함, 안도감을 볼 수 있었다) (정상분만이 제왕절개술보다 더 좋다) (수월하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으며, 「가족의 우애와 지지를 실감함」은 (귀하고 장하다)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남편의 지지가 보기 좋았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다. 또한 「건강한 아기의 탄생」은 (아기가 예쁘고 건강해 보였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다.
2. 부정적인 반응은 8가지 범주로 「공포감」 「긴장감」 「놀라움」 「무력감」 「무감동」 「혐오감」 「피할 수 없는 운명」 「힘들어 보인다」 이었으며 「공포감」은 (무섭고 끔찍했다) (충격적이었다) (두려웠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고, 「긴장감」은 (실습前 들은 얘기에 긴장했다), 「놀라움」은 (분만과정이 놀라웠다), 「무력감」은 (분만진통시 안타깝게 지켜 봤다), 「무감동」은 (산모의 진통에 감정이입을 느끼지 못했다), 「혐오감」은 (혐오스럽고 민망했다) 라는 각각의 속성을 포함하였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어렵고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 들였다) (나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으며, 「힘들어 보인다」는 (산모, 아기 모두 힘들었겠다) 라는 속성을 포함하였다.

2. 제 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을 제언한다.

1. 간호학생들에게 「송고한 생명의 탄생」 「분만 후의 편안함과 만족감」 「가족의 우애와 지지」 「건강한 아기의 탄생」이라는 긍정적 반응의 4가지 범주에 대한 Intensive Education Program을 제공한다면 보다 긍정적 관심을 갖고 모성간호 실습에 임할 수 있겠다.
2. 실습나오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모성실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Orientation(시청각 교육 포함)을 제공하여 부정적 범주의 하나인 「긴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겠다.
3. 동통완화에 대한 이론강의가 미처 시작되기 전에 실습을 나오게 되므로 부정적 범주의 하나인 「무력감」을 느끼게 되므로, 학생들에게 동통완화에 대한 유인물을 미리 배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4. 앞으로 간호학생들의 모성간호 실습 후의 반응에 대한 추후조사를 계속하여 교육의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소야자(1973).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 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3(3), 15~23
- 김소야자(1974). 정신과 간호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학교 학생들의 태도 비교 연구, 간호학회지, 4(2), 17~29
- 김수지(1979). 임상간호 교육과정, 경희간호 연구지, 3(78)
- 김정선(1991). 간호학생들의 돌봄에 대한 지각, 모자간호 학회지, 창간호, 5~15
- 김정순(1984). 간호직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간호전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여부를 중심으로, 인천간·보내 논문집, 4, 67~80
- 김주희(1982). 간호 대학생들의 임상 실습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대한간호, 21(1), 45~57
- 박송자(1993).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 Q방 법론 적용, 간호학회지, 23(4), 544~554
- 송미승(1992). 초산모의 질분만 경험, 간호학회지, 22(4), 444~453
- 오순애(1984). 임상 실습에 대한 간호학생의 태도 조사 연구, 중앙의학, 46(2), 125~131
- 이미경(1984). 일부 간호전문 대학생의 자아개념 특성에 관한 일 연구, 최신의학, 27(10), 175~181
- 이미라·이금라(1978). 모성 간호학 학습후 간호학생의 지식,태도 및 행동의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34(4), 405~411
- 이미라(1987). Roy적응모형에 근거한 모성간호학 교육과정, 중앙의대지, 12(4), 611~632
- 조결자, 강현숙(1984). 일부 간호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임상 실습 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14(2), 63~74
- 조정호(1983). 출산교육이 간호학생의 출산 및 모성행위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석(1973). 간호 대학생의 학년별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3(2), 121~129

- Abstract -

A Review of Responses of Nursing Students Follow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Practice

Cho, Cheong Ho*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responses of nursing students follow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practice, to develop data of further effective clinical maternity nursing practice, to understand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natural maturation process toward pregnancy delivery and puerperal process, to help the nursing students achieve personality growth and development through clinical maternity nursing practice.

The subjects were 35 senior nursing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of Chung - Ang University.

* Clinical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 Ang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1st semester (Feb.22~June 9) to the 2nd semester(Aug.23~Nov.10), 1993 through self-reporting using an open ended questionnaire about perception and feelings regarding the normal delivery process.

The data analysis used descriptive method.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1. Following clinical practice in maternity nursing, the responses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collected includ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he positiv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 to four categories and each category included subgroups.

One group, labelled as 「The birth of noble life」 had a subgroup, (I felt the mystery and wonder of life), another group, 「After delivery, comfort and satisfaction」 with the subgroup (I can bear to see the comfort and relief beyond pain) (C/S is better than vaginal delivery) (Very easy), the 3rd group, 「I realized family friendship and support」 with subgroup (Honorable, Magnificent) (I thank my parents) (It's good to looking at my husband's support), and the 4th group, 「The birth of a healthy baby」, with its subgroup, (baby looks pretty and healthy).

2. The negative responses were classified in eight categories and each category included subgroups.

One group labelled as 「Fear」, had subgroups of (Terrible, Horrible) (Shock) (Dread), another group, 「Tension」, and its subgroup, (I became tense about stories heard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3rd group, 「Surprise」 and its subgroup (I was surprised

at the delivery process), the 4th group, 「Powerlessness」 and its subgroup, (I watched the labor pain impatiently), the 5th group 「Apathy」 and its subgroup, (I didn't feel the empathy for the labor pain of the pregnant women), the 6th group, 「Disgust」 and its subgroup, (Disgust, Embarrassed), the 7th group, 「Inevitable destiny」 and its subgroups (necessity of self-sacrifice and difficulty) (I accepted it as a women's destiny) (I can't do it), the last group, 「There seems to be trouble」 and its subgroup, (It seems to have been a little too hard for mother and baby).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are as follows :

1. Nursing students should receive intensive education about 「The birth of noble life」 「After delivery, comfort and satisfaction」 「I realized family friendship and support」 「The birth of a healthy baby」, so that a more positive attitude can be developed before clinical maternity nursing.

2. Nursing students should be given an orientation which is reality based and related clinical maternity nursing (using for A.V. Materials), so that they will not feel they tension, of the negative categories.

3. Nursing students should be received articles on Pain Relief Method, so that they will be prepared active and positive in the clinical practice, and therefore they will not feel the powerlessness, of the negative categories.

4. F/U for responses of nursing students should be checked following clinical maternity nursing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nstruction.